



## 발데스 퇴출



# “유격수 누구로 세울까”

이현곤·김선빈 등 4명  
후임자 명단에 올라

‘굿 바이, 발데스’

KIA 타이거즈가 27일 KBO에 용병 발데스의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다. 발데스는 47경기에서 0.218의 타율과 6개의 실책으로 부진하면서 결국 퇴출 순서를 밟게 되었고, KIA의 ‘수비형 용병’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마땅한 주전 유격수가 없는 KIA는 내야가 약점으로 꼽혀왔다. 부실한 내야를 위해 조범현 감독은 고육지책으로 발데스를 선택했다. 시범경기에서 빠른 발과 재치있는 타격으로 기대를 모았던 발데스는 메이저리거다운 수비를 선보이며, KIA의 역대 최고 유격수로 꼽히는 이종범과 견주어 ‘흑종범’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하지만, 막상 투구를 열고 보니 방망이가 시원찮으면서 빠른 발을 제대로 선보이지도 못했고, 한 번씩 나오는 어이없는 실책은 경기의 흐름을 뒤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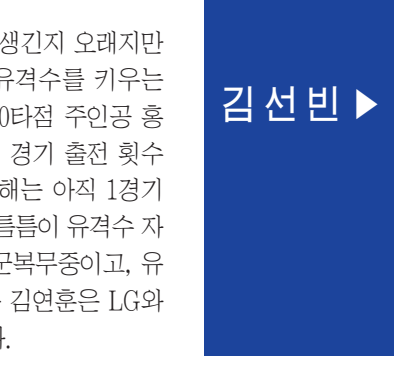
유격수자리에 문제가 생긴지 오래지만 KIA는 그동안 차세대 유격수를 키우는 데 실패했다. 2003년 100타점 주인공 홍세안은 부상에 시달리며 경기 출전 횟수가 눈에 띄게 줄더니 올해는 아직 1경기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 틈틈이 유격수 자리를 지키던 김민철은 군복무중이고, 유망주로 꼽히던 서동욱과 김연훈은 LG와 SK로 각각 트레이드됐다.



이현곤



김종국



김선빈

곧게 믿었던 발데스가 퇴장하면서 유격수 자리는 또다시 무주공산이 됐다.

현재 유격수 자리 선점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선수는 김선빈이다. 지난 16일 김선빈은 발데스 대신 처음으로 유격수 자리에 나섰다. 25일에는 유격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안정된 수비로 일단 눈도장을 찍어놓았다.

유격수 출신인 김선빈은 올 시즌 2루수로 주로 경기에 나왔다. 타고난 수비 능력이 있다는 평가에도 김선빈은 익숙지 않은 자리여서 인지 종종 아쉬운 플레이를 보였다.

유격수가 가장 품에 맞다면서 호시탐탐 유격수 자리를 노렸던 김선빈은 발데스의 퇴장으로 제 2의 손선수라는 자신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 앞선 5경기에서 0.375의 타율로 신인답지 않은 매서운 방망이를 선보였던 김선빈은 차기 유격수 1순위다.

하지만, 유격수가 내야의 핵심인 만큼 김종국·이현곤 등의 베테랑들이 유격수 자리로 이동하면서 내야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조범현 감독이 직접 영입한 유망목과 김형철도 유격수 경쟁에 뛰어 들었다. 김형철은 27일 발데스가 빠진 자리를 대신해 처음으로 1군에 이름을 올리며 기회를 잡았다.

고요하던 KIA 내야가 발데스의 퇴출로 여수선해졌다. KIA 차세대 유격수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최경주 타이틀 방어 나선다

내일 PGA ‘메모리얼’ 개막  
최근 두 대회 컨디션 난조  
대회 2연패 가능성 낮아



최경주

‘한국산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사진)가 올해 첫 타이틀 방어전에 나선다.

최경주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뉴어필드 빌리지골프장(파72·7천366야드)에서 개막될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출전한다.

후배들의 신망이 두둑고 영향력이 막강한 잭 니클러스(미국)가 대회 주최자로 나선다는 메모리얼 토너먼트는 PGA 투어대회 가운데 메이저대회에 버금가는 A급 이벤트이다.

최경주가 ‘엘리트그룹’에 진입한 원동력도 바로 지난해 메모리얼 토너먼트 우승이었다. 최경주가 타이거 우즈(미국)가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작년 이 대회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최경주의 타이틀 방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최근 컨디션이 신통치 않다. 최근 2개 대회에서 컷조차 통과하지 못해 세계랭킹 8위의 체면을 구겼다.

마스터스대회 1라운드부터 8라운드 연속 60대 타수를 적어내지 못했다. 특히 장기로 내세웠던 아이언샷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슬럼프가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마저 낳고 있다. 마스터스, 플레이어스챔피언십, 크라운 플라자인비테이셔널 등 최근 3개 대회에서 버디를 하나도 잡아내지 못한 날이 사흘이 나왔다.

대회에 앞서 우승 후보를 꼽는 PGA투어 홈페이지도 디펜딩 챔피언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는 관행과 달리 최경주에 대해 “최근들어 좋지 않다”고 언급해 2연패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무릎수술을 받은 뒤 재활을 마치지 못한 우즈와 대회 직전에 다친 비제이 싱(피지), 그리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어니 엘스(남아공), 그리고 다른 일정을 짰 세계랭킹 3위 아담 스콧(호주) 등이 빠지지만 필 미켈슨, 짐 퓨릭, 스티브 스트리커(이상 미국), 제프 오길비(호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등 강호들과 우승 다툼이 부담스럽다.

뉴어필드 빌리지골프장을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네셔널골프장 다음으로 좋아한다는 최경주가 타이틀 방어를 통해 슬럼프 탈출을 선언할지 주목된다. 앤서니 김(23·나이키골프), 나상욱(24·코브라골프)도 출전한다.

# ‘관록이나 패기나’

SBS코리아투어 내일 개막  
40대-20대 정상 다툼 관심

‘베테랑들의 수성이나 20대 기수들의 정상 탈환이나’

지난 3년 동안 젊은 선수들에게 우승컵을 허용하지 않았던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SBS코리아투어 금호아시아나오픈이 29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용인 아시안폴드장(파72·6천800야드)에서 펼쳐진다.

젊은 패어웨이와 빠른 그린 스피드로 무장한 대회 코스는 장타보다는 정교한 샷을 구사하는 선수들에게 유리했고 많은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에게 우승 재

을 선사했다. 2005년 첫 대회 우승자가 당시 32세였던 장익재(35·하이트)가 그나마 나이가 가장 어렸고 2006년에는 신용진(44·삼화저축은행), 작년에는 박남신(48·테일러메이드)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년 전부터 세대 교체 바람이 불어 닦쳐지던 20대 선수들은 유독 이 대회에서만큼 기를 펴지 못했다. 올해 대회에도 장익재를 제외한 신용진과 박남신이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지난 주 열린 레이크힐스오픈에서 공동 13위에 오르

노의장을 과시하고 있는 최상호(53·가스코)도 관록의 샷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도전하는 20대 우승 후보 명단에는 올 시즌 한차례씩 우승컵을 들어올린 배상문(22·캘러웨이), 김형성(28·삼화저축은행)에다 ‘에이스’ 김경태(22·신한은행)까지 이름을 올리며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다.

또한 ‘승부사’ 강경남(25·삼화저축은행)과 강성훈(21·신한은행)도 이제는 우승컵을 들어 올릴 때가 됐다며 버리고 있다. SBS와 SBS골프채널이 중계한다.



## 박찬호 1이닝 무실점

볼펜투수 박찬호(35·LA 다저스)가 무실점 행진을 재개했다.

박찬호는 27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계속된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컵스와 방문 경기에 선발 채드 빌링슬리에 이어 1-2로 뒤지던 7회 마운드에 올라 1이닝 동안 안타 2개, 볼넷 1개를 내줬지만 점수를 주지 않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18일 LA 에인절스전에 선발등판해 4이닝 동안 2점(1자책점)을 준 뒤 9일 만에 등판한 박찬호는 첫 타자 지오바니 소토를 투수 땅볼로 처리하며 쉽게 출발했다.

짐 에드먼즈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박찬호는 마크 테로사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으나 대타 마이카 허프과워에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내줘 2사 1,3루에 몰렸다.

후속 알폰소 소리아노에게 볼넷을 허용, 만루를 맞았지만 박찬호는 라이언 테리올을 조구에 유격수 땅볼로 잡고 볼을 갔다. 최고 시속은 156km가 찍혔다. 모처럼만에 등판한 닷인지 투수가 26개로 많았고 스트라이크는 16개를 쫓았다.

박찬호는 중간 계투로 등판한 경기에서 8일 뉴욕 메츠전 이후 세 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평균자책점도 2.10(종전 2.17)으로 떨어졌다. 다저스는 8회 1점을 더 뒤 1-3으로 졌다.

## “이천수 다음 시즌 주목해야 할 선수”

네덜란드 축구전문지 보도

이천수(27·페예노르트)가 네덜란드 언론으로부터 다음 시즌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혔다.

축구전문지 ‘풋발인터내셔널’ 최신호는 “이천수는 지난 시즌 안드렐레 슬로리와 함께 기대되는 선수였으나 부상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올 시즌에는 트벤네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다 페예노르트로 이적한 카림 엘 아바디와 함께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선정한다”고 보도했다.

단 “부상 회복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페예노르트에 입단해 네덜란드 프로축구에서 첫 시즌을 보낸 이천수는 부상으로 12경기 출전에 그쳤다.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이천수는 지난 22일 오른 발목 안쪽의 옷자란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페예노르트는 2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이천수가 지난주 한국에서 발목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면서 “재활에 약 3개월 정도 걸릴 8월 말까지는 팀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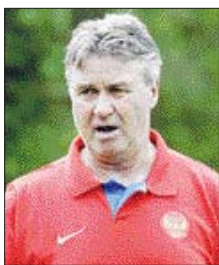
한국-일본 첫 대결  
여자 아시안컵 축구

여자축구대표팀이 4강을 목표로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대회에 출격한다.

대표팀은 29일 오후 7시(이하 한국시간) 베트남 호치민 통남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대회 B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일본과 첫 대결을 펼친다. 이어 31일에는 호주와 2차전을, 다음달 2일 대만과 최종전을 갖는다.

한국은 B조에 속해 있는 팀 가운데 FIFA 랭킹이 25위로 세번째로 높다. 일본이 10위이고 호주가 12위, 대만이 30위다. 4강에 오르려면 호주와 일본 둘 중 하나를 넘어서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형편이다.

히딩크 ‘헬시 감독설’ 부인



아브람 그랜트 전 감독의 경질로 공석이 된 잉글랜드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헬시의 새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던 거스 히딩크(사진) 러시아 대표팀 감독

과 로베르토 만치니 인테르 밀란(이탈리아) 감독이 헬시 지휘봉을 잡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AFP통신은 27일 히딩크 감독 에이전트가 영국 더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히딩크는 2010년 월드컵까지 러시아대표팀에 머물 것”이라며 헬시행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보도했다.



‘파도타널’ 빠져 나올 수 있을까? 27일 피지 태바루아에서 서핑프로페셔널협회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열린 글로브 프로 3라운드에서 남아프리카 더반의 트레비스가 멋진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엔뉴스

## 비너스·파블루첸코바 프랑스 오픈 테니스 2회전 진출

비너스 윌리엄스(28·미국)가 프랑스 오픈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2회전에 올랐다.

세계 7위 윌리엄스는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단식 1회전에서 최포도 오브질러(93위, 이스타

엘)를 2-1(6-3 4-6 6-2)로 물리치고 64강에 진출했다.

199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대회에 나와 이번이 12번째 출전인 윌리엄스는 2002년 동생 서리나와 결승에서 만나 준우

승한 것이 최고 성적이다. 2회전 상대는 셀리아 스파르(241위·튀니지)로 결정됐다.

이번 대회 본선 출전 선수 가운데 최연소인 아나스타샤 파블루첸코바(188위·러시아)도 2회전에 합류했다.

1991년 7월3일 생인 파블루첸코바는 마리아 에밀리아 살레르니(97위·아르헨티나)를 2-0(6-1 6-1)으로 완파하며 ‘영 파워’를 과시했다.